

## ■ 독학으로 '영어달인' 된 강혜지 주무관의 비법노트

# ‘나홀로 스피치’ 영어 감각 깨워준 일등공신

한국인에게 영어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 땅의 수많은 기리기 가족이 양산된 것도 ‘그 벽’의 영어 때문이다. 한국인은 죽어도 안 된다는 영어를 독학으로 익혀 달인의 경지에 오른 강혜지 씨(30·남구정 기획감사실)에게서 비법을 전해 듣는다.

—독학으로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게 된 배경을 꼽는다면

조기교육이나 사교육을 받지 않고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정규교육으로 영어공부를 했다. 하지만 영어 텍스트나 자료를 무조건 소리내서 읽었다.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 최대한 내 목소리로 읽고 소리내야 직성이 풀리는데 아마 이 습관이 영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

—한국사람이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세대가 문법이나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해서 회화가 안 된다고들 말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문법과 독해에 치중하다보니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듣고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부족하고 여간이 열악했던 것이 큰 이유일 거라 생각한다. 나는 영어공부를 하면서 문법이나 문장구조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 부분에 특히 열중했다. 그 뼈대를 바탕으로 어휘나 표현을 더해 내 문장을 더 잘 다듬을 수 있었다. 나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언어는 계속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가는 ‘평생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 지름길을 찾기 보다는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

—외국에 가지 않고 영어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갈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각오를 가졌고 그 방법이 나를 통하기 시작하니가 굳이 외국에 갈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안 가도 잘 할 수 있는데’라는 자만심이 아니라, ‘가야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떠한 채워봐도 되지’라는 생각이었다. 텍스트를 읽고 방송을 들으면서 그 언어로 간접체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영어실력이 부족 해 결정적 계기는

중3 때 영어에 흥미가 생겼고 점차 빠지게 됐다. 그 때 고등학생용 교재까지 다 풀어버렸는데 이 때 실력이 많이 다져졌다. 이후 대학에서 영문과 수업을 많이 들었고, 응용언어학에 관심이 생겨 관련 논문도 찾아 읽으면서 좀 더 진지하게 외국어를 대하게 됐다. 졸업 후 영어방송국에서 뉴스나운서를 일하면서 직접적으로 매일 영어를 쓰고, 원어민들과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또 영어로 된 뉴스와 정보를 매일 읽고 설명하고 논의하면서 많이 풀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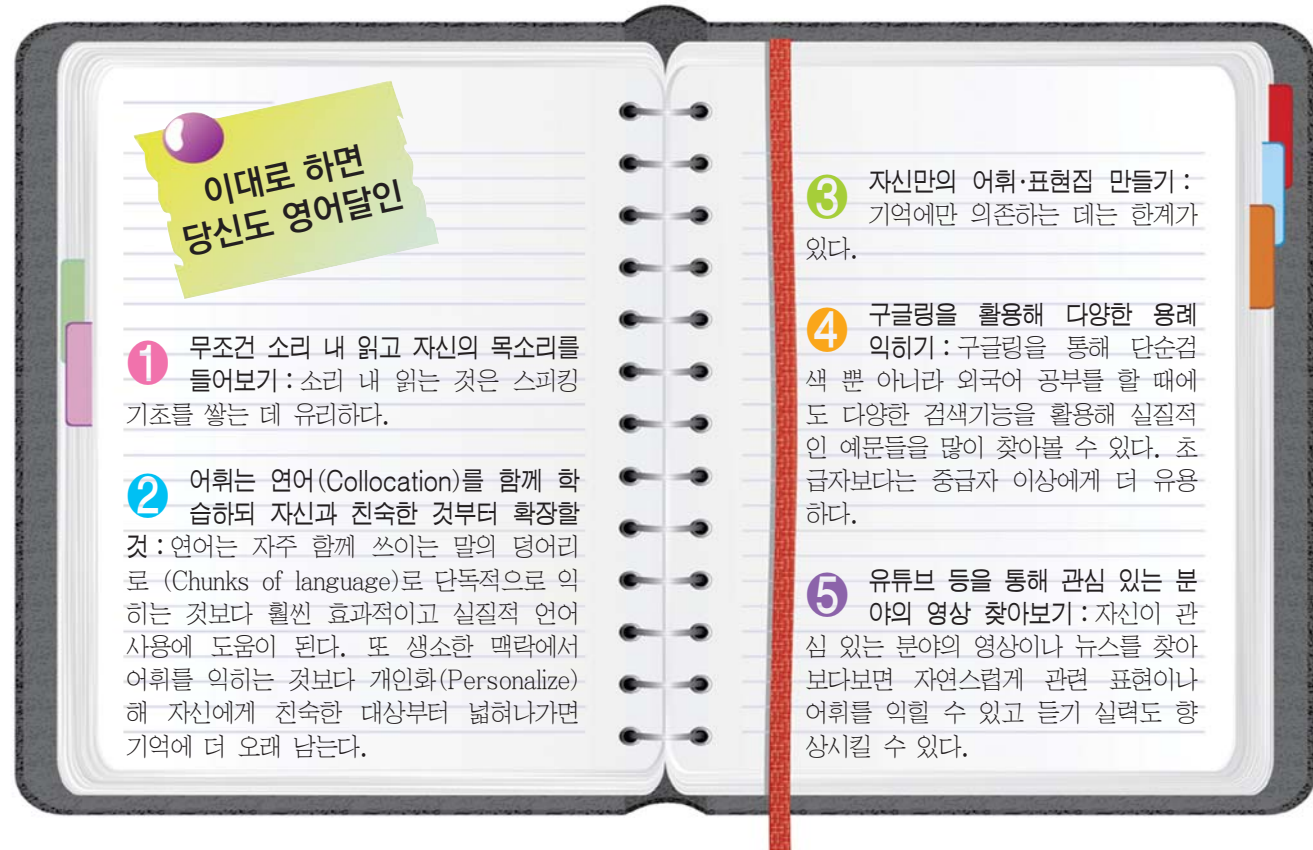
## 원서·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해 원어민 수준 발전

### ■ 영어 고수 강혜지는 누구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그 흔한 영어학원도 다니지 않고 영어원서와 인터넷(유튜브 동영상)만으로 혼자

서 영어를 공부해 원어민 수준까지 올랐다. 외국 체류 경험은 한 달 런던 배낭 여행과 7일 호주 출장이 전부. 지난해 제11회 지방공무원 외국어 능력평가대회에서 교포 및 유학파 출신들을 제치고

영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부산 영어방송 뉴스나운서를 하다 2014년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남구 청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며 해외교류 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다.



—영어스킬 향상의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영어는 계단식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주어·동사도 말하지 못하다가 동사변화(Conjugation)이라든지 일정한 패턴 연습이 되고 난 뒤에는 문법과 어휘에 좀 더 힘을 실어 학습을 한 결과 어느새 실력이 훌쩍 뛰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중급 이상에서 문법 혹은 영어다운 표현, 어휘 등을 공부하고 연습하다보면 고급의 구사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다.

—영화 혹은 뉴스 등 리스닝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은 뭐냐

무엇이든 자신이 한국어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라면 괜찮은 것 같다. 거기서부터 수준을 올려 가면 좋다. 일상회화가 필요할 때는 미국드라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괜찮았다. 시사적인 내용을 원할 때는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큐멘터리는 다듬어지고 세련된 표현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학습자료가 된다.

적당히 가벼운 토코소로는 ‘This Morning’ 같은 아침프로그램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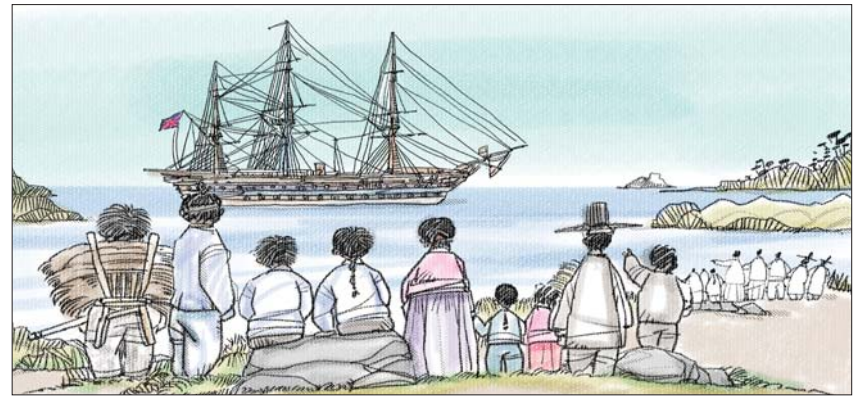
—무작정 많이 청취하는 것이 독인지 약인지

많이 듣는 것 못지않게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는 알더라도 내가 직접 소리 내 보는 게 좋다. 무작정 듣는다고 음성이 들리고 내용이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적으로는 내가 연속하거나 알고 있는, 우리말로 들어서도 이해할 법한 내용을 듣는 것을 권한다. 또 기술적으로는 내 입으로 소리를 따라 내 본 단어와 표현들이 더 잘 들릴 것이다.

—본인의 스피킹 실력 향상 방법은

‘나홀로 스피치’를 자주 했다. 다른 사람들의 스피킹은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내 실력을 파악하거나 향상시키기 어려웠다. 3분 스피치를 예로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와 주장을 펴며 3분을 외국어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다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문장을 더 다듬고 삶을 붙여가게 된다. 나의

## ■ 영어 관련 남구의 흥미로운 이야기



## 1797년 용당포로 표류해 온 영국 탐사선 영어가 우리땅에 첫 도착한 세기적 사건

영어가 우리땅에 맨 처음 ‘도착’한 곳이 남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797년 10월 14일(정조 21년) 영국 함선 프로비던스호가 용당포 앞바다에 나타났다. 북태평양 탐사 도중 물과 식량이 바닥 나 정박지를 찾다가 용당포까지 온 것이다. 이때 윌리엄 로버트 브라우턴(1762~1821) 함장과 선원들은 용당포 주민들과 조우해 ‘영어와 우리말의 첫 만남’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날을 어떻게 기록했다. ‘이국의 배 한 척이 동래 용당포 앞바다에 표류해 이르렀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코가 높고 눈이 파랗다. 역관을 시켜 국호와 표류해 온 연유를 물었지만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 몽고어를 모두 알지 못하였다. 붓을 주어 쓰게 하였더니 모양새가 구름과 산과 같은 그림을 그려 알 수가 없었다(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 10월 25일)’.

긴장감 속에서도 용당포 주민들은 선원들에게 물과 빨감을 조건없이 전해주



선전대에 세워진 함영 첫 만남 기념비.

고 브라우턴 함장은 물레 물으로 올라와 일대를 측량하고 마을사람들과 대화하며 우리말 38개 단어를 채집했다.

프로비던스호는 8일간 용당포 앞바다에 머문 뒤 주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권총과 망원경을 선물하고 다시 북태평양 탐사를 위해 떠났다. 브라우턴 함장은 영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항해일지를 정리한 ‘북태평양 탐사항해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를 발간해 조선과의 첫 만남과 이때 채집한 우리말 38단어를 소개했다.

**오류도각문**

세계의 눈이 평창으로

# 평창동계 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김정휘

Happy 2018 100% 무료 국비 훈련생 모집 (매월 수당 35만원 지급)

국비지원으로 이상 누구나 지원가능!!

과정명	구분	개강일정
한식조리기능사 및 급식조리실무과정	실업자	상시 개강
양식조리기능사 및 양식조리실무과정	실업자	
한식, 중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	실업자	
소자본창업양성과정	실업자	
일식조리기능사 및 생선회양성과정	실업자	
한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	재직자	
소자본창업양성과정	재직자	

**부산대 연음식나라조리학원**

부산 남구 대연동 1729-5 남천빌딩 4층 (대연역 1번출구 앞)  
수강문의 Tel 051-628-6464 www.yescook.co.kr

유료광고

겨울철 전통 건강간식 수제 강정 맛보러 오세요

since 1971

취급품목

참기름, 들기름, 고추, 깨, 참살이 고추장, 간장, 된장, 소금, 쌀, 잡곡, 진도율금, 아마씨, 마늘, 생강, 각종 차(보리, 옥수수, 결명자, 동글레 등)

주문·배달 환영 / 4계절 장 담아드립니다

과일나라, 못골 건강원 옆 ☎621-8115 **못골시장 형제상회**

유료광고

2년이면 졸업이 인정되는 **성인학생모집 (정규학교)**

**수업료 전액 교육청 지원**

할 수 있다! 배우는 즐거움! 잃어버린 학창시절을 되찾자!

※ 중·고등학교 **정규졸업장** 수여  
고졸 후 **대학진학** 가능(2017년 50명 진학)

학교	수업료	교과서
중학교 (주간야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전액무료
고등학교 (주간야간)	수업료 전액	교육청 지원
초등학교 (문해반)	1년 과정 졸업장 수여	

—미용예술과 졸업 시 미용사면허증 취득!  
—만16세 이상 남녀 누구나!  
—기초부터 상세히 쉽게 수업!

※ 지하철 1호선 장림역—학교 무료셔틀운행

**부경중·부경보건고등학교(2년제)**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40(장림동)  
상담전화 051) 266-4352~3

유료광고

♥ **중매전문 공합전문** ♥

결혼전문회사 진성코리아

30년의 교육자 40년 봉사자로 살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목숨이 다할 때 까지 정열을 바치려고 1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기 출산 결혼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국민 모두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참해주세요 구국의 일념으로 같이할 동지를 찾습니다.

국제전화번호 : 동래-17-0001호/국내전화번호 : 동래-17-0003호/여성가족부 지도정점 관리업체  
대표전화 : 555-1368 연중무휴 상담전화 : 010-4550-3085  
**위치 : 지하철1호선 동래역 1번출구 건너편**

유료광고

2년만에 졸업하는 성인 어머니 (고등)학생 모집

● 학력인정 부산예원고등학교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주간반(9시) / 야간반(6시)	찾아오는 길
<b>중학교 (2년)</b> ○ 초등학교 졸업 자격자 ○ 졸업장 취득(검정고시 없음) ○ 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b>전액 무료</b>	<b>노선버스 : 42(남구) 99(진시정) 179(명감동) 184(경관)</b> <b>지하철 : 4호선 (금사역 3번출구)</b> →미용버스6(선수출입아트...문천정역) 환승 : 1호선 (문천정역 4번출구) →미용버스6번
<b>고등학교 (2년)</b> ○ 중학교 졸업 자격자 ○ 졸업 후대학진학 가능(무시험) ○ 교육비 : <b>한달 16,660원</b>	환승 : 4호선 (명정역 2번출구) →99, 42 정류장 <b>목성리화</b> 에서 내리세요
<b>분교자랑</b> ○ 전국 최초 교육부지정 어머니 학교 ○ 20년 전통의 성인교육 전문학교 ○ 국, 영, 수, 한문, 컴퓨터, 예비학교 운영 ○ 어머니들만의 전용건물, 주차장 완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1(회동동) 입학상담 (051)526-1852~3

유료광고